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The Year of Gyeonggi
Folk Culture

제20회

THE KYEONGGIDO
FOLK ART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5. 9. 18.금 - 19.토

경기도 오산시 종합운동장

개막식 축하공연(9.18) : 경기도립무용단
폐막식 축하공연(9.19) : 오산운암예술단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오산문화원
후원 : 세계속의 경기도 | 경기도의회 | 오산시 | 오산시의회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20회 경기도 속 민속예술제

경기도 오산시 종합운동장

2015. 09.18(금)
~
2015. 09.19(토)

캘리그라피 서재적_한국원자력협회 50년 제호 캘리그라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슬로건 캘리그라피, 논산시청 블로그 메일 캘리그라피 등 다수의 캘리그라피 제작

CONTENTS

02 I. 인사말

대회사_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축 사_경기도지사

환영사_오산시장·국회의원·오산시의회의장

격려사_한국문화원연합회장

09 II.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개요

15 III. 참가작품 소개 (출전 순)

안산●과천●부천●성남●여주●파주

화성●광명●의정부●포천●하남●김포

구리●안성●용인●오산●군포●양평

동두천●남양주●양주●시흥●수원●광주

연천●이천●안양●가평●고양●평택

대회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존경하는 경기도민,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를 빛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을 비롯, 곽상욱 오산시장님, 문영근 오산시의회 의장님, 안민석 국회의원님, 이경동 한국문화원연합회장님, 그리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31개 시·군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펼쳐지는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가하신 시·군문화원과 참가단체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더운 여름을 치열하게 연습하고 그 성과를 오늘 이곳 오산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 지역의 역사와 삶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이것이 경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 하듯이, 우리의 뿌리인 향토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곳에 농축된 조상의 얼과 슬기를 교훈삼아, 더욱 찬란한 미래를 창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예술이, 그 나라 국민정신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민속문화는 그 뿌리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우리 문화의 뿌리와 자긍심을 후대에 길이 보전하는, 전통민속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행사로, 또한 경기도의 민속예술인과 도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오산시와, 각 시·군의 전통문화를 발굴·전승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경기도내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제를 주관해 주신 오산문화원 공창배 원장님과 임직원 분들, 그리고 오산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 참가자 여러분들의 멋진 경연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경기도지사 **남 경 필**

소중한 우리 민속예술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무 해 세월동안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때 서양의 문화를 선호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경시했던 잘못된 시대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최근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를 통해 31개 시·군이 각 지역의 민속예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굳건한 위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민속예술을 보존·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기 민속예술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환영사

오산시장 **곽 상 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온 마을이 배우고 가르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시』에 오신 것을 21만 오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충과 효가 넘치는 까마귀의 도시 오산에서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 민속예술은 우리 민족의 삶이자 생활 그 자체였으며, 현재는 문화예술의 힘이 곧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될 만큼 중요시 되고 있으나, 해가 거듭날수록 소중하고 숭고한 우리의 전통 민속예술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점차적으로 소외되고 사라져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각 지역의 민속예술을 선보이는 자리로서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교류와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어 우리의 전통문화가 더욱 발전되고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민속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과 각 시·군의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국회의원 **안 민 석**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는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21만 오산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공창배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지역문화예술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속예술은 그 자체로 훌륭한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뛰어난 문화 콘텐츠로서 이번예술제가 우리 전통문화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모든 예술인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뿌리인 향토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곳에 농축된 조상의 얼과 슬기를 교훈삼아 더욱 찬란한 미래를 창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 육성하여 민속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성을 유지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로 20회를 맞는「경기도민속예술제」가 지역 민속예술인들에게 화합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민속예술의 향취를 뜨거운 햇살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마음껏 음미해 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민속예술의 발굴과 보존의 장(場)인 '경기민속예술제'가 그 정통성과 역사성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축제로 뻗어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환 영 사

오산시의회 의장 **문 영 근**

혁신교육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오산시에서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개최하게 된 것을 21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기도 각 시·군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선수단 여러분의 오산시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속예술제 개최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문화의 전통민속예술을 계승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삶에 문화적 향수를 달래주는데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시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생활문화 시대를 통해 점차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생활이 예술이다'라는 말을 흔하게 하며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범을 시작으로 아주 오래된 연륜을 축적하면서 그동안 많은 민속작품이 민속경연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속예술의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고도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오늘 같은 도 단위 대회가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각 시·군의 전통 민속예술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계승발전 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확대를 위한 민속예술 경연의 장입니다. 아마도 민속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드높이는 '국내 최대 민속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축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이런 예술제에 참가하시는 선수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산시도 지역의 전통 문화를 연구, 개발, 보전, 선양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자산을 마련함은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속예술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는 대회로서 경연에 참가한 선수들께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거듭나길 바라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신명난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 경 동**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오산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를 빛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강득구 도의회 의장님, 곽상욱 오산시장님, 문영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발전시켜 오신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31개 시군문화원장님과 내외 귀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다양한 민속예술의 원형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장으로서, 지역 문화 창조의 역할과 함께 우리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예술이 그 나라 국민정신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전통민속문화는 그 뿌리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날 시련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 깊은 문화예술의 저력이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민속예술제는 경기도의 얼과 뿌리를 재확인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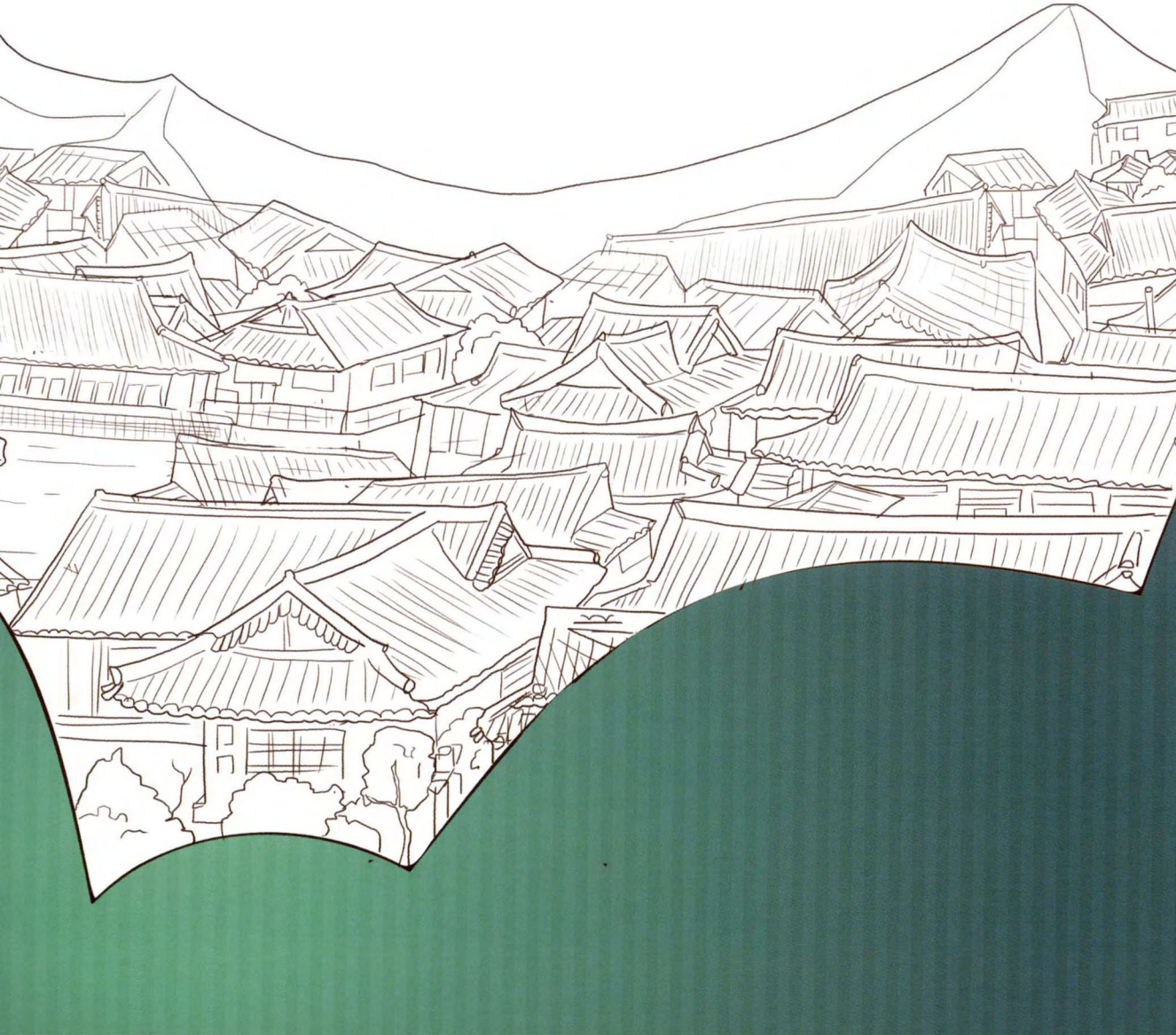
끝으로 오늘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신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문화원장님과,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제20회

THE KYEONGGIDO
FOLK ART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II.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개요

1. 행사개요
2. 행사목적
3. 운영 및 심사 방침
4. 참가현황
5. 행사 일정표
6. 시상 계획
7. 역대 개최지 및 수상현황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 **기　　간** : 2015년 9월 18일(금) ~ 19일(토)
- **장　　소** : 경기도 오산시 종합운동장 일대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　　관** : 오산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산시, 오산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2. 행사목적

- 경기도내 각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 마련
- 한국의 민속예술과 다른 나라의 민속예술의 교류를 통해, 세대 및 인종간의 벽을 허물고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

3. 운영 및 심사 방침 (관련근거 : 경기도(청소년)운영규정 제15조)

1) 심사항목 및 기준(관련근거 : 경기도(청소년)운영규정 제3조)

- 출품작의 전통성 및 출품작에 대한 이해도
- 전승의 충실성
- 참가자들의 기량 및 숙련도
- 해당 주민의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도
- 관중의 호응도

2) 수상자결정(관련근거 : 경기도(청소년)운영규정 제9조)

-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 참가단체별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한 점수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참가단체별 채점결과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단,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했던 동일작품은 대상과 최우수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채점결과 복수의 단체가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협의를 거쳐 대회장이 결정한다.
- 위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심사방법(관련근거 : 경기도(청소년)운영규정 제8조)

- 심사방법은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대한 총점제로 한다.
-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연자 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기록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하다.

4) 심사결과 발표방법(관련근거 : 경기도(청소년)운영규정 제10조)

- 본 대회의 심사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로 하며, 대회 종료 및 심사위원장 총평 후,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5) 심사회피제도(관련근거 : 경기도(청소년)운영규정 제7조)

- 심사위원은 본 대회의 참가자를 직접 지도한 사실(제자)이 있거나 8촌 이내 친인척 관계, 당해 참가작품의 고증자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본 대회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는 대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회장은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6) 수상자 사후관리(관련근거 : 경기도(청소년)운영규정 제13조)

본 대회는 수상자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경연대회 고지 시 발표하며 이를 홍보지, 팜플렛, 결과보고서 등에 게재하며, 경연대회 시에 게시판에 고지한다.

4. 참가현황 (경연순)

경연일	시간	지역	출연작품명	경연구분	단체명
9월 18일	9:00~9:30	안산	안산둔배미 배치기소리	민속놀이	안산둔배미놀이보존회
	9:30~10:00	과천	과천 선소리산타령	민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10:00~10:30	부천	석천농기고두마리	민속놀이	부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
	13:00~13:30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민속놀이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
	13:30~14:00	여주	이포 나루굿	민속놀이	문화체험 공동체 다스름
	14:00~14:30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	농악	파주농악보존회
	14:30~15:00	화성	화성두레농악 판제	농악	사단법인 화성두레농악 보존회
	15:00~15:30	광명	철산리 쇠머리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민속놀이	광명농악보존회
	15:30~16:00	의정부	유현리 기우제	민속놀이	의정부문화원 버들개마을 민속놀이보존회
	16:00~16:30	포천	포천 가노 농악	농악	포천문화원
	16:30~17:00	하남	남한산나무꾼 길싸움 놀이	민속놀이	하남문화원
	17:00~17:30	김포	대명항배띄우는 소리	민속놀이	대명항배띄우는소리 보존회
	17:30~18:00	구리	구리 구지농악	농악	구리구지농악단
	18:00~18:30	안성	안성 청룡 바우덕이 지경다지기	민속놀이	안성선소리타령 보존회

경연일		지역	출연작품명	경연구분	단체명
9월 19일	9:00~9:30	용인	포곡읍에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 재현	민속놀이	포곡민속보존회
	9:30~10:00	오산	오산외미거북진놀이	민속놀이	오산외미걸립 농악보존회
	10:00~10:30	군포	군포 군웅제	민속극	군포국악동아리
	10:30~11:00	양평	양평나물놀이와 목도소리	민속놀이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양평군지부
	11:00~11:30	동두천	탑동상여회다지소리	민속놀이	탑동상여소리 보존회
	11:30~12:00	남양주	삼봉두레풍물	농악	삼봉두레풍물보존회
	12:30~13:00	양주	양주들노래	민속놀이	양주들노래보존회
	13:00~13:30	시흥	군자봉 성황제 유가	민속극	시흥문화원
	13:30~14:00	수원	수원 두레	농악	수원민속예술단
	14:00~14:30	광주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민속놀이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보존회
	14:30~15:00	연천	임진강 참게 줄당기기	민속놀이	연천문화원
	15:00~15:30	이천	용면리 용줄다리기	민속놀이	이천문화원
	15:30~16:00	안양	안양만안답교놀이	민속놀이	안양만안답교놀이 보존회
	16:00~16:30	가평	잣돌이의 꿈	생업	가평문화원
	16:30~17:00	고양	진밭두레소리	민요, 무용	성석농악진밭 두레보존회
	17:00~17:30	평택	파일난장 등대굿 놀이	민속놀이	평택풍물단

5. 행사 일정표

구 분	시 간	경연장	특설무대	야외광장
1일차 9/18	9:00~10:00	경연대회(3)		
	10:00~11:00			체험행사 부대행사
	11:00~12:00		개막식	
	12:00~13:00	점심시간		
	13:00~18:30	경연대회(11)		
2일차 9/19	9:30~10:00	경연대회(6)		
	10:00~12:00			체험행사 부대행사
	12:00~12:30	점심시간		
	12:30~17:30	경연대회(10)		
	17:30~18:00		특별공연	
	18:00~18:30		시상식 및 폐막식	

6. 시상 계획

시상구분		훈격	시상대상	시상품
계			미정	
단체	대 상	경기도지사	1개팀	우승기 · 상패 · 상장
	최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	1개팀	상패 · 상장
	우 수 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	1개팀	상패 · 상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개팀	상패 · 상장
	공 로 상	오산시장	2개팀	상패 · 상장
	예 술 상	오산시장	3개팀	상패 · 상장
	민 속 상	오산시의회의장	3개팀	상패 · 상장
	장 려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8개팀	상패 · 상장
	소 품 상		1팀	상패 · 상장
개인	지 도 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1명	상패 · 상장
	연 기 상		1명	상패 · 상장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시상명칭 및 훈격, 시상금이 변동될 수 있음)

7. 역대 개최지 및 수상현황

민속예술제

대회명	일시	개최지	장소	출연팀	대상팀
제1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82.10.16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20개팀	연천군 아미산울어리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83.10.28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21개팀	김포군 주사손돌공진혼제
제3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84.10.28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	22개팀	이천군 거북놀이
제4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85.10.4~5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	26개팀	강화군 용두레질 노래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86.9.12~13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36개팀	김포군 두레농요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89.9.8~9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	26개팀	김포군 상두꾼소리
제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91.9.12~13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33개팀	포천군 메나리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93.9.2~3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27개팀	수원시 장치기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94.9.8~9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	30개팀	광명시 광명농악놀이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95.9.14~16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	27개팀	수원시 이의동길마재줄다리기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1997.9.24~26	여주군	여주공설운동장	23개팀	고양시 싱아대말장 박는 소리
제12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1999.9.1~2	동두천시	동두천종합운동장	17개팀	동두천 이담풍물놀이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1.9.22~23	광명시	광명종합운동장	18개팀	광명시 아방리 줄다리기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3.9.19~20	고양시	고양시 중산공원	25개팀	광명시 아방리 농요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5.9.1~2	안성시	안성종합운동장	26개팀	이천시율면장승달구지 화성시 화성농악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007.9.1~2	안산시	안산시호수공원 중앙광장	28개팀	과천시 나무꾼 놀이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09.9.4~5	용인시	용인종합운동장	29개팀	동두천 동두내 옛소리 물까부리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1.9.30~10.1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28개팀	-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3.9. 27~28	포천시	포천종합운동장	29개팀	대상 : 평택 거북놀이 최우수 : 광명철산리 쇠머리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청소년민속예술제

대회명	일시	개최지	장소	출연팀	대상팀
제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1996.9.17~18	수원시	수원체육관	25개팀	안성시 남사당 풍물놀이
제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1998.9.22~23	수원시	수원체육관	23개팀	고양시 두레풍물놀이
제3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0.9.23~24	부천시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	25개팀	광명시 아방리줄다리기
제4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2.9.28~29	시흥시	옥구공원 내 운동장	26개팀	광주시 광지원농악
제5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4.9.16~17	용인시	용인시실내체육관	26개팀	포천메나리 농악놀이
제6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6.9.7~8	의정부시	의정부시실내체육관	27개팀	광명 아방리 들소리
제7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08.9.5~6	성남시	성남시실내체육관	30개팀	고양시 마두장군놀이
제8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10.9.9~10	시흥시	시흥시체육관	29개팀	양주들노래
제9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12.9.21~22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28개팀	광주 광지원농악
제10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2014.10.16~17	의정부시	의정부실내체육관	25개팀	평택 어업요

III. 참가작품 소개 (출전 순)

1. 안산
2. 과천
3. 부천
4. 성남
5. 여주
6. 파주
7. 화성
8. 광명
9. 의정부
10. 포천
11. 하남
12. 김포
13. 구리
14. 안성

1일차(9.18)

15. 용인
16. 오산
17. 군포
18. 양평
19. 동두천
20. 남양주
21. 양주
22. 시흥
23. 수원
24. 광주
25. 연천
26. 이천
27. 안양
28. 가평
29. 고양
30. 평택

2일차(9.19)

안산 둔배미 배치기 소리

고증.천병희 | **지도위원.**차도열, 성무제, 홍한기, 최명선, 김순남

안산

안산시

유래

조선시대 안산에는 궁중에 지방특산물을 진상했던 사옹원분원이 있어 안산바다에서 잡히는 밴댕이, 민어, 준치, 새우 등의 해산물을 진상하여 왔으며(동국여지승람, 안산군읍지) 세종때부터는 안산 둔배미마을 근처에 초지양령을 설치하여 크고 작은 전선(戰船)을 주둔시키고 조세, 조운, 해안방위 등의 임무를 수행 하였다(세종실록) 별망성 아래 별망마을(현 열병합발전소)에는 초지진의 별망군(別望軍)들이 주둔하던 망루가 있기도 하였으며 초지진을 보호하던 별망성은 현재 경기도지정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안산의 둔배미포구(둔포, 원포: 현 안산시 초지동 안산공과대학 인근)는 안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선(戰船)과 중선(重船)이 드나들 수 있는 가장 큰 포구로서 어업이 성행하였었다.

발굴경위

1987년 안산지역의 풍물가락과 농요를 찾기 위해 故박해일(국가중요무형문화재 79호 발탈예능보유자, 안산국악협회회장)선생이 둔배미포구와 성머리포구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을 탐문하여 배치기소리를 채록하고, 능길마을의 농부들에게 농요를 채록하기 시작하여 1989년 향토사학자 故이한기선생과 함께 배치기소리에 대한 원형을 정리하여 40여년만에 둔배미놀이를 정립하였다. 이 후 1989년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고(종합우수상) 1990년 안산둔배미놀이보존회가 구성되었으며 1991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이 후 매년 안산시의 문화예술행사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특징

안산둔배미배치기소리는 안산의 옛 둔배미포구의 어부들이 어로작업을 하며 부르던 배치기소리, 바디질소리, 서낭당고사 풍물놀이 등의 민속놀이로 구성된 옛 둔배미포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대동놀이 이다. 특히 둔배미 배치기소리는 황해도 배치기와는 메김소리와 받음소리가 가락면에서 구분되며 경기도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존 전승되고 있는 경기배치기소리이다.

구성 및 진행과정

1) 성황당 고사(서낭제)

① 선주가 제관이 되어 당집에 제물을 차린다.
② 선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이어 도사공이 선원들을 대표하여 잔 을 올린다.
③ 도사공은 선주가 내어주는 소지를 받아 소지를 올린다.
④ 선주는 도사공에게 봉죽을 건네준다.
⑤ 사공들은 서낭당 산신기와 임장군기, 백기를 제각기 받아들고 배치기소리를 하며 어선에 오른다.

2) 길놀이(배치기소리)

① 어부들의 배치기행진에 농부들과 아낙들이 화답하며 함께 배로 향한다.
② 용왕제를 모실 떡시루와 음식을 머리에 인 아낙들이 배옆에 이르러 춤을 추고 어부들이 승선한다.

3) 용왕제와 선상배치기소리

① 어부들이 배에 기를 꼽고 용왕제를 모신다.
② 배가 출항하며 어부들이 배치기소리를 하고 아낙들과 농부들이 같이 소리를 받는다.
③ 떠나는 배를 보며 아낙들과 어부들이 축원을 드린다.

4) 어부들의 행선 및 어로작업(선상배치기)

① 어부들이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간다.
② 용왕제를 모셨던 술과 음식을 모두 바다에 뿌린다.

5) 만선귀향(바디질소리)

①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면 바디로 퍼올리며 바디질소리를 한다.
② 만선 오색기를 올리고 백포장 둘러치고 배치기소리를 하며 어선이 귀향한다.

6) 대동축제

① 둔배미포구에 배가 도착하면 배치기소리와 풍물소리가 어울리며 축제의 장이 선다.
② 동리아낙들이 고기를 받기위해 그릇을 이고 배로 모여든다.
③ 어부들과 아낙들은 고기를 퍼 나르고 선주부인은 술동이를 이고 나와 어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④ 배에서 내린 어부들과 아낙들과 농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풍물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과천 선소리산타령

고증.임정자 | **지도위원.**임춘희

유래

정조임금이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화성능행을 할 때 과천사람들이 임금의 행차를 반기며 농악대, 잡색의 춤사위, 무동풍물놀이, 지신밟기, 우물고사, 다리고사 등을 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선소리산타령을 부르며 답교놀이를 중심으로 한 연희가 진행되었다.

발굴경위

일제강점기 이후로 중단되었으나 1981년 과천면 노인회장 이윤영을 비롯한 주민들과 민속학자 심우성의 공동작업으로 복원되었다.

특징

과천 선소리 산타령은 다리 위에서 부르는 것이 특징으로 선소리패가 서고 그 앞에 모갑이가 서서 메기고 받는 형태로 산타령을 부른다. 모갑이가 앞소리를 메기면 소고를 든 선소리꾼들과 연희자들이 후렴구를 함께 부른다. 현재 선소리답교에서는 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산타령을 부른다.

놀이시기

연례행사

구성

선소리패 모갑이, 소리꾼, 잡색남녀

진행과정

잡색남녀가 흥을 돋우며 모갑이가 소리꾼과 함께 다리 위로 등장하여 과천 선소리 산타령을 소고춤과 함께 부른다. 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산타령, 개구리타령

과천시

과천

석천농기고두마리

고증.유영래 | **지도위원.**손영철

Fantasia
판타지아 부천

부천

문화특별시 부천의 뿌리
부천문화원

유래

석천농기고두마리는 1800년대 초부터 1910년대까지 옛날 부평군 석천면, 현재의 부천시 송내동과 상동 및 중동 일원에서 이어온 민속놀이이다. 논농사의 세벌매기를 마치고 7월 백중날 마을 대항으로 치른 풍물이 어우러진 놀이이다.

발굴경위

부천 토박이(박승선(고), 유영래/부천시 대장동)에 따르면, 초창기의 농기고두마리는 인근 마을 중에서 농기를 먼저 만들어 사용한 마을이 상좌에 오르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마을 대항의 농기싸움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이를 '상좌다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특징

독특한 명칭이 돋보인다. 농기고두마리 즉 농기꼭대기에 꽂혀 있는 꿩장목을 부천에서는 독특하게 '고두마리'라 불렀다. 기싸움은 논매기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승패가 나면 이긴 마을은 형님, 진 마을은 아우님이 되어 일년동안 사이좋게 지낸다.

놀이시기

7월 백중날

구성

솔안말과 서촌말의 농기싸움

진행과정

놀이마당 들어가기와 인사 → 세벌논메기 → 마을잔치 → 풍년제 → 농기싸움 → 기세배 → 화합의 한마당

푸른성남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고증.황용주 | **지도위원.**방영기

유래

'이무술'은 과거에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 옛 지명으로 현재,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곧, 이무술 마을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좋은 터를 고른 후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옛날에는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지을 때, 집터를 고르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 집을 짓는 동안의 안전과 지은 후에도 영원히 복을 누리기 위해 기원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을 내용으로 하는 소리를 부르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은 품앗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살려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이어왔고, 소리를 통해 신명을 돋우면서 고단함을 덜었던 것입니다.

발굴경위

이무술은 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옛 이름으로서 원래 '이무술'이란 자연부락이었다. 300년전 천렵을 즐기던 한 농부가 냇가에서 커다란 고기를 안고 나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기는 천 년만에 승천할 이무기로서, 마을 주민들이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위령 승천제를 지내자 그 자리에 난데없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그 후부터 이매동으로 불리웠다 한다.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도 경기지방의 음률이 반영되고 있는데, 집 터를 닦고, 다지고 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특히 집 터 다지는 소리가 특색있게 잘 발달되어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지경다지기)는 1982년 발굴 및 재연하여 1983년 3월 27일 관계기관 및 고증인, 감수, 마을 주민과 함께 시연회를 하였고, 1985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1994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에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특징

집 터 다지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터주신이나 귀신은 밤에 움직인다고 믿어 밤에 행하여야 액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절차로는 집주인이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장만하고, 지경돌과 횃불을 준비해 놓으면 동네사람들이 모여든다. 먼저 고사 술상을 준비하여 동티나지 말고 큰 부자가 되게 빌며, 술을 사방에 뿌리고 동네 사람들은 술을 한 순 배 마시고, 횃불을 켜들고 터를 다지는데, 보통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지경꾼들은 후렴을 한다. 이때의 소리는 고된 작업을 흥에 겨워 힘든 줄 모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는 건설지향적이고 미풍양속이 듬뿍 담겨있는 것으로, 음율은 서울과 경기일원이 비슷하다. 왜냐하면, 경기도 중심부에 서울이 있고 그 둘레가 모두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집 터 다지는 소리도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리워졌는데 사대문 안과 밖의 음율은 역력한 차이가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서두에 "에이려라"로 시작되는데 비해,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서두가 "에이여라 지경이요"라고 불리워졌다.

놀이시기

-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지을 때
- 집터를 고르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

구성

입장 및 농악놀이 – 성토 – 지경다지기 - 풍년가

진행과정

고사 → 동아줄 꼬는 소리 → 성토(가래질 소리) → 지경다지기 (초지경 –양산도타령, 중지경 - 방아타령, 종지경 – 잦은 방아타령) → 휘모리 → 뒷풀이

여주

멋품여주!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이포 나루굿

고증.조성문

유래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와 남한강 건너편의 대신면 천서리를 연결하던 이포나루는 여주지역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사용되었던 나루이다. 이포(梨浦)라는 뜻은 '배가 닿는 터'의 한자어식 명칭이다. 이포는 어업은 물론 예로부터 지금까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많은 시인과 명사들이 이포에 은둔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향하는 진상품이 올라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나루주변은 자연스레 큰 시장들이 형성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풍요를 감사하는 '나루굿'을 작게는 매년 크게는 3주년을 주기로 벌여 왔으며, 근대에 들어서도 이포나루는 양평 및 원주 지역 주민들을 이천과 서울로 연결시켜 주는 주요 통로로써 6.25전쟁 이후에는 대형 조선으로 차량까지 운송하였다고 한다. 1991년에 이포대교가 완공 되어 나루터만 남았지만 현재까지도 그 풍요에 감사하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나루굿'행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경위

이포리에서 3년 주기로 크게 올리는 삼산상굿과 나룻굿을 함께 하시던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엔 매년 고창놀이도 하고 풍물패도 일주일씩 크게 놀고 나룻굿이 마을잔치 였는데, 요즘은 촌에 사람이 없어...' 하시며 아쉬워하는 말씀을 듣고, 지역의 풍물패들이 합류 이포나루부터 조포나루, 부라우나루, 우만리 나루, 이포나루를 지나 흔암나루까지 이어진 여주의 나룻터와 잊혀져가는 우리의 공동체 놀이, 무형의 우리문화를 살리고자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

특징

여강 이포나루굿은 황토나룻배에 시루떡을 실어 강에 띄우고 용왕제를 지내는 동안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제를 올리고 용왕제에 이어 마을주민들이 밤새 꼰 새끼 동아줄에 돌과 짚을 달고 마을청년들이 강으로 들어가 투망을 놓듯 줄을 던지고 마을주민들이 양끝을 잡아 당기며, 고기를 몰아 잡아서 마을잔치를 준비하고 풍물꾼들이 판을 열면 대동놀이가 되었다.

놀이시기

이포리에서는 큰 나루굿은 3년을 주기로 음력 4월 봄마다 판을 열고 매년하는 작은 나루굿은 농번기 전, 후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구성

조형물 : 나룻배, 오색만장, 깃발, 고창놀이 줄
역　할 : 뱃사공, 무속인, 소리꾼, 풍물패, 마을주민
악　기 : 쇠-6명, 징-5명, 장구-20명, 북-19명, 태평소-1명

진행과정

나룻배 띄우기 → 대동 비나리 → 고창놀이 → 광대놀이

PAJU
파주시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

고증.조영현 | **지도위원**.조성돈

유래

파주지역은 개성 상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의 왕래가 많았으며, 이 상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재주꾼들도 많았다고 한다. 파주 기세울에 당도하는 상인들은 파평 윤씨의 집성촌인 안말(내촌)의 옆 동네인 마루골(두곡동)에 주로 거주하였고 이 마루골에는 상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씨의 평민들이 주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기세울(현 와동리) 마루골지역에 구성된 농악대들과 상인들(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재주꾼들)이 서로의 재주를 교환하기도 하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다고 한다.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이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이유는 이런 여러 지역의 재주꾼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은 조선 세조 때부터 걸립과 더불어 굿(사당)적인 요소, 두레적인 요소 등을 다양하게 가진 농악놀이로 세시풍속을 동반한 의식행사와 같은 마을의 경조사를 모두 아우르는 민중놀이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발굴경위

교하지역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으로 넓은 평야와 곡창지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두레가 성행했던 지역이다. 특히 파주 교하의 기세울 지역은 파평 윤씨 집성촌을 이루었던 지역으로 마을의 화합과 한 해 농사의 풍년, 마을사람들의 안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위하여 농악놀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6.25전쟁(1950년)을 기점으로 기세울 지역을 비롯한 교하지역의 농악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사진자료나 문서 등 역사적 근거들 또한 모두 훼손된 상태이다. 파평 윤씨 정종공파 36대손인 故윤시덕(1931년생, 만80세)씨를 비롯하여 김명기, 권대현, 박성걸의 고증을 받아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의 역사적 근거와 파주지역의 농악에서만 행하여지는 가락과 진법에 대하여 발굴 복원하게 되었다.

특징

교하 기세울 농악은 중부권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악놀이로, 지역 토착민들과 함께 전문재주꾼(전문예인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지역과 황해도지역을 아우르는 한강 이북지역의 농악놀이이다. 다양한 장르의 놀이들을 복합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그 중 쇠가락과 소고잽이들의 채상놀음이 여타 농악대들과는 달리 화려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아랫 지역의 놀음들은 발버슴새가 화려한 반면 교하 기세울 농악은 소고잽이들의 상모놀음이 화려하며, 악기의 가락 또한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쇠잽이 뒤로 제금(바라)이 반드시 따르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고잽이들의 채상(상모) 놀음이 화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악대의 상쇠가 풀어가는 가락 또한 여느 지역의 가락보다도 변화무쌍하며 이는 민속학적 측면으로 볼 때, 서울새남굿, 경기도당굿, 황해도풍어굿 등에서 그 가락의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파주 교하 기세울 농악은 단순한 동네 농악이 아니고, 그 기능이 매우 뛰어났으며, 개성과 연백 등 황해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 늦거리(늦은채), 십자거리, 내는 가락, 인사굿 등이 타 지역의 농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놀이시기

정확한 놀이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구성

쇠-3 바라-1 징-2 장구-4 북-4 소고-10 무동-8 태평소-2 농기-1 영기-2 단체기-1 잡색-2 (총 40)명

진행과정

인사굿 → 돌림벅구 → 앞당산 → 오방진(길군악) → 뒷당산(쩍쩍이,쾌자춤) → 십자걸이 → 사통백이 → 좌우치기 → 늦거리 → 밀벅구 → 개인놀이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화성두레농악 판제

고증.안병선 | **지도위원**.황삼열

화성

유래

화성시 지역은 예로부터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하고는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농업이 생활의 근간이었다. 이 농업노동에 있어서 마을 공동작업인 두레가 서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었고 주로 모심을 때가 아닌 논매기 때였다. 화성시 지역에서 '농악'이라는 명칭보다는 '두레' 혹은 '두레농악'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두레조직이 활성화 되어있고 이 두레조직을 기반으로 공동 작업시 논맴소리, 작업 이동간의 풍물, 마을 대동굿 등이 행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발굴경위

화성 두레굿은 크게 모내기소리와 논맴소리, 이동간의 풍물, 마을 대동굿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내기소리와 논맴소리는 농업노동과 관련한 노동요의 일종으로 농업노동의 구조가 기계화된 현재에는 노래로만 남아서 전해지며, 재현을 통해서만 그 활용을 볼 수 있다. 화성두레농악 판제는 '마을 대동굿'의 공동체적 놀이판의 음악적, 진법적 구성을 기반으로 각 마을의 두레패가 행하였던 공동 농업노동의 재현을 24절기를 기반으로 한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성하였다. 화성지역 권역별로 두레패마다 가락과 진법, 그리고 법고 놀음과 개인놀이 등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경기도 지역의 가락의 특징과 진법의 구성을 따르고 있어서 경기권역의 일부로서 편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락과 진법구성, 개인놀이 등을 발굴하는 동시에 화성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토박이 가락과 독특한 진법 등도 발굴하여 전체 판제을 구성하였다.

특징

화성두레농악 판제에 쓰이는 가락은 대체로 경기지역 가락의 특징인 빠르고 경쾌함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쇠가락에서 장식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싯가를 채워서 빠르게 연주하여 흥을 더하는 더드레가락(자진모리), 길가락(칠채) 등의 가락이 돋보이며, 자진가락(휘모리)의 '별도밝고 달도밝고'의 연주법은 여타 경기도 지역의 가락과는 사뭇 다르다. 화성두레농악 판제의 진법구성은 구성 상 농사진이 주를 이루며 병농일치굿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개인놀이로는 법고놀이, 버나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무동놀이 등 경기지역 뒷놀음의 기본적 형태를 따른다.

놀이시기

기본적으로 두레굿은 노동과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농업노동과 연관하여 수시로 행해졌다. 화성의 두레농악 중 대규모의 판굿은 주로 한해의 농사를 마칠 때 쯤 호미를 씻어 걸어두고, 마을 사람들과 두레패가 어울려 제를 지내고 하루를 음주가무로 즐기는 일종의 마을 축제인 '호미걸이'나 '두레싸움'등의 때에 행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며 두레조직이 해체된 이후, 정월대보름의 지신밟기, 각 마을의 용줄다리기 등의 세시와 민속행사에 때에 주로 보여진다.

구성

대규모 판굿에서는 낭대 1명, 호적 1명, 쇠 2명 이상, 징 1명 이상, 장구 2명 이상, 북 2명 이상, 법고 8명 이상과 무동 5명 이상, 잡색 약간 명으로 구성되었고 호적(태평소)는 '두레를 제대로 차린다' 할 때는 쌍호적을 두기도 하였다. 복색은 악기잽이와 법고수는 흰 바지저고리 위에 청색 조끼를 입으며, 노란띠와 파란띠를 오른쪽 어깨에 두르고 허리에 붉은 띠로 갈무리 하였다. 무동은 색동저고리에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두르며, 사미(중애)는 흰 장삼에 꽃이 없는 흰 고깔을 쓴다.

진행과정

첫째마당 굿머리굿 (①어름굿 - ②지경다지는 소리 - ③돌림벅구 - ④인사굿),
둘째마당 동제굿 (⑤당산벌림1 - ⑥반달진 - ⑦보름달진),
셋째마당 품앗이굿 (⑧논두렁 밭두렁 - ⑨써래질 가래질),
넷째마당 농사굿 (⑩모내기굿 - ⑪모심는 소리 - ⑫논매는 소리),
다섯째마당 병농일치굿 (⑬멍석말이 - ⑭당산벌림2 - ⑮외줄백이 - ⑯쌍줄백이 - ⑰벼베기굿(2-4-2) - ⑱절구벅구 - ⑲도리깨질 - ⑳사통백이 - ㉑원좌우치기 - ㉒합동좌우치기 - ㉓가새치기),
여섯째마당 풍년굿 (㉔상벅구 옆가락 - ㉕상벅구 춤가락 - ㉖풍년굿),
일곱째마당 뒷당산벌림 (㉗개인놀이 - ㉘돌림벅구 - ㉙인사굿 - ㉚퇴장굿)

철산리쇠머리디딜방아액막이 놀이

고증.김헌선 | **지도위원.**임웅수

유래

옛날 300년전 마을에서 돌림병을 물리치는 의식과 놀이를 발굴하여 재현한 작품으로 300여년전 철산리, 소하리 일대에서 돌리병(역질)이 발생하면 마을대동회의를 열어 제물을 올리고 이웃마을 디딜방아를 훔쳐 거꾸로 세워놓고 주의에 부엌칼을 세우고 솥뚜껑을 거꾸로 이고 왼새끼로 금줄을 치고 마을 입구에서 치성을 드리며 역병이 물러가기를 기원하는 놀이

발굴경위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산업화로 점점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환경에서 옛날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 보존하는 사업으로 철산리 디딜방아 뱅이를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돌림병을 물리치는 디딜방아 뱅이는 마을의 역병이 돌아 그 역병을 막는데 이웃마을에 디딜방아를 몰래 훔쳐 거꾸로 세워놓고 제를 올리며 아낙네들이 속바지를 걸어놓고 춤을 추는 역병을 막아내는 놀이이다.

놀이시기

놀이시기는 일정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 역병이 돌았을때 행해졌던 의식과 놀이로써 주로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성행하였다 한다.

구성

제관, 기수, 농악대, 디딜방아, 동네사람들 등으로 구성되며 마을의 당산과 상여놀이, 외나무다리 건너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진행과정

마을의 역병이 돌아 마을의 대동회의를 시작으로 역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웃마을에 디딜방아를 몰래 훔쳐 마을 입구에 거꾸로 모셔놓고 집집마다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거꾸로 세우고 고사를 지내고 역병이 물러나게 되면 신명난 뒷풀이 한마당 뒤 퇴장하게 된다.

광명 빛을 품은 광명시

유현리 기우제

고증.조수기 | **지도위원.**이미숙

유래

유현리는 의정부 녹양동마을 어귀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버드나무가 무성한 고개라 하여 버들개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유현(柳峴)이라하여 유현리가 되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유현리버들개농요가 전해져내려 올 만큼 농사를 지어 생활해 온 농경지역이다. 따라서 날씨와 기후 등 자연현상 따라 풍년과 흉년을 가늠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민감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하여 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해지면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며 목민관이나 또는 마을대표가 제단을 모으고 주육을 갖추어 놓고 한재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자우(慈雨)를 내려주기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리하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려 백성들의 시름을 덜게해주고 농사도 풍년이 되었다고 한다.

발굴경위

의정부는 15년 전부터 지역의 민속놀이를 발굴, 계승, 발전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하여 의정부유현리버들개농요를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구축하고 이를 계승해오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무형유산과 우리의 소중한 민속놀이를 더욱더 발굴하고 계승하고자 우리의 농촌문화인 농요와 연계하여 기우제가 있었음을 발견 이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서 놀이 뿐만 아니라 하늘과 신께 제를 지내는 모습을 춤으로 엮어 각각 역할의 통일성과 협동심, 단결을 보여줘야 시연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연희자들의 협동심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징

농경의례와 달리 기우제는 비가내리는 효험이 있을 때 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여 지내는 특성이 있다. 의례를 지내는 주체나 방법, 장소 등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지내며 기우제에 참여하는 주민이 많을수록 공동기원의 효력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데 기인한다. 유현리의 기우제는 상서로운 동물인 용에게 비가오기를 기원하는 유형, 마을여성들이 바가지를 들고 강으로 나가 물을 뿌리며 수신에게 기원하는 유형, 밤에 횃불을 들고 산으로 나가 불을 지르며 비가오기를 기원하는 유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음력 4월~7월까지 농사짓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 기간으로 연중행사였다.

구성

기수 3명 ▪ 쇠 1명 ▪ 징 1명 ▪ 장구 5명 ▪ 북 5명 ▪ 목민관 또는 마을대표 1명 ▪ 제사장 1명 ▪ 동네사람들 23명 -총 40명

진행과정

입장 → 용에게 기원 → 강가에서 수신에게 기원 → 횃불을 이용한 기원 → 대동놀이 → 퇴장

1)마을사람들의 등장

풍물패와 깃수를 선두로 목민관 또는 마을대표가 마을사람들을 이끌고 등장한다.

2)용에게 기원

청룡의 형상을 마당 가운데 세워놓고 이를 돌기도하고 용을 향해 빌기도 하면서 기원한다.

3)강가에서 수신에게 기원

마을의 아낙네들이 바가지를 들고나가 강가에서 물을 붓고 뿌리며 수신에게 기원한다.

4)횃불을 이용한 기원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불을 지피고 비가내리기를 기원한다.

5)대동놀이

기우제를 끝내고 제를 지낸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제를 마무리짓고 한바탕 놀이를 마련한다.

6)퇴장

모든 제를 끝내고 마을사람들이 퇴장하며 흩어진다.

포천 가노 농악

고증.조상규 | **지도위원.**이병욱

포천

무궁무진 포천

유래

옛날 다섯 선비가 금수정에서 시를 읊으면서 영평천의 맑은 물이 금수정을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와 빼어난 주위의 경관을 보고 다섯 선비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였다하여 五人 오인의 합자인 오 伍 자에 아름답다 는가佳자를 붙여 오가리라 하였다. 포천지역의 금수정·창옥병·아름다운 강·산·마음씨 좋은 사람 등 다섯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하여 오가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포천 지역은 민요 노동요 일의 성격 일터의 환경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형성되어 지는데 포천은 산과 들이 고르게 펼쳐져 있어 여러 종류의 노동요와 농악의 형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포천 오가리 가노농악은 3 백년 전인 영평현 (가노 부락 옛 명칭) 에서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당시 나라에서 도장을 가노 부락에 하사하여 연천, 철원, 가평등 지역의 농악을 관장하게 하였다. 농악을 하려면 이도장을 받아 가야농악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창수면 오가리 지역에 농악이 성행하였으나, 6·25 전쟁 당시 접전 지역인 포천지역이 문화재 유실이 많았다고 한다.

발굴경위

6·25 전쟁당시 접전지역인 포천지역인 문화재 유실이 많아 가노농악 또한 유실되어 그 당시 살아 계신 분들을 통하여 다시 복원

특징

포천가노농악은 지역적 특성과 같이 소고 잽이 들의 놀이가 구성지고, 특히 내돌림 벅구에서 외돌림 벅구로 이어져 휘몰아치는 부분이 일품이며 여타 경기농악의 오방진과 다르게 악기소고의 진과 새미들로만 구성된 진이 동시에 이루어져 푸짐한 연희를 볼 수 있다.

놀이시기

음력 6월

구성

입장으로 시작하여 엽뛰기, 벅구놀이, 새미놀이, 당산벌림, 오방진, 가새벌림, 사방치기, 원좌우치기, 4줄백이, 쩍쩍이 등으로 이루어졌다.

진행과정

입장 → 엽뛰기 → 벅구놀이 → 새미놀이 → 당산벌림 → 오방진 → 가새벌림 → 사방치기 → 원 좌우치기 → 4줄백이 → 쩍쩍이 → 인사굿

남한산나무꾼 길싸움 놀이

고증.김종규 | **지도위원.**이강범

하남

하남시

유래

남한산 나무꾼 길싸움 놀이는 하남의 춘궁동 나뭇길 마을에서 전승되던 민속놀이이다. 나뭇길 마을은 남한산과 금암산 사이에 취락을 이루고 있던 마을로서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 가 땔감을 해다가 생계를 유지하던 산촌 마을이다. 이 마을의 나무꾼들이 오르내리는 산길은 좁고 가파르며 호랑이등 사나운 짐승이 많아서 많은 나무꾼들이 함께 나무를 하러 다닐 때 조심스러워해 이들을 달래는 제례의식이 있었다고 전하며, 아울러 나무꾼들 사이에 채취가 쉬운 나무 길을 먼저 이용하려 하였고, 이 과정서 길싸움 놀이가 일어났으며, 농업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기 싸움과 혼합되어 하나의 전승 민속놀이로 정착하게 되었다.

발굴경위

광주군에서 분시가 되면서 한성 백제의 고도로 알려진 하남시의 독자적인 민속을 채취하고 발굴하는 과정서, 옛 금암산을 배경으로 생활했던 고골 일대의 주민들을 통해 남한산 나무꾼 길싸움 놀이가 연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내 고장 민속놀이의 전형으로 복원함

특징

1. 나무 채취 과정서 호환 등 사나운 짐승을 피하고 달래려는 제례 의식(부정거리굿)이 행해짐
2. 나무 채취 과정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땔감을 채취하려는 욕구에서 부락 간에 풍물패의 도움을 받아 기세싸움 등 흥미로운 연희가 이루어짐
3. 마을의 안녕과 상부상조의 미덕, 대동단결 의식을 갖게 하는 놀이로서 다른 지역의 민속놀이와 성격이 비슷함

놀이시기

매해 정초

구성

부정거리 연희팀 - 기세싸움팀 - 풍물연희팀 - 소리팀 - 기타

진행과정

기 : 두 동리를 대표하는 풍물팀이 연희를 하며 길잡이를 나서면 뒤를 이어 남한산 나무꾼 길싸움 놀이를 할 민속 연희팀이 자연스럽게 입장을 하며 산신제를 올릴 준비를 마친다.

승-1 : 산신제를 올릴 준비가 끝나면 나무꾼들을 호환(虎患)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부정거리 굿을 시행한다.

승-2 : 산신제가 끝나면 금암산 아래의 두 부락을 대표하는 나무꾼이 잔잔한 풍물이 이어지는 배경 속에서, 말로 기 싸움을 벌이다, 꿩 장목의 깃털을 먼저 뽑는 부락이 금년의 땔감 채취를 우선하는 자격을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주고받는다.

승-3 : 기세 싸움을 통해 땔감 채취권을 획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수용됨과 동시에 두 부락으로 나뉘어 기세 싸움을 백중지세의 상황 속에서 박진감 있게 전개한다. (원래 농기 싸움은 농사를 시작함에 있어 농로를 오가다 길에서 서로 마주치면 상대 마을의 농기 상단에 장식된 꿩 장목을 빼앗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꿩 장목은 물론 농기와 농악기까지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아 농기 싸움에 강한 마을의 깃발을 보면 마주치기를 꺼려 일부러 돌아가기도 했다. 하남 지역에서는 신평리와 장대 마을 간에 기 싸움이 자주 연희되었으며, 이외에도 현재 감북동, 천현동, 춘궁동 등의 여러 곳에서 기 싸움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나무꾼들의 길싸움 놀이는 기 싸움과 형식은 같으나, 농사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땔감을 하러 다니는 길에서 벌어지는 전통 민속놀이이다.) 그 점에서 남한산 나무꾼 길싸움 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상부상조의 미덕, 대동단결 의식을 갖게 하는 놀이라는 점에서 다른 놀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승-4 : 기세 싸움의 결과 꿩 장목을 먼저 빼앗은 팀이 환호하고, 진 팀이 탄식하는 가운데 이긴 부락의 대표 나무꾼이 서로 협력하여 금년 땔감 채취를 하자고 대승적 제안을 한다.

결 : 모두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먼저 진 쪽 부락의 나무꾼들이 앞길을 터주는 풍물을 통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어 이긴 부락이 꿩 깃털을 휘날리며 행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품을 거두어 퇴장하는 모습으로 연희를 맺는다.

Best Gimpo 김포

대명항배띄우는 소리

지도위원.이용호

유래

옛날 김포의 한정포구(현재 김포대명항)에서는 낙배를 타고 남가지뻘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소리가 있었는데, 만조 때 '낙배'한척과 작은 배 두척을 몰고 나가 죗골수문통까지는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가고 썰물이 시작될 때 썰물의 힘을 이용해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초지-소교바위-상여바위-황미골-동검디를 통해 날가지뻘로 나아갔다. 그 곳에서 낙배의 닻을 내리고 작은 배 두척에서 그물을 양쪽으로 넓게 늘인 다음 낙배의 반대편에서부터 긴 막대기로 고기를 몰아 그물을 걷는 형태로 고기잡이를 하였다. 배를 출항하면서부터 노동요 형태의 소리를 하였는데 물살이 센 염하강에서의 배몰이 방법과 항로가 노래 속에 담겨 있어 모두 그 소리에 맞춰 대화를 하고 작업을 하였다. 그물을 늘일 때 많은 고기가 잡히기를 기원하고 고기를 몰 때 힘차게 구령을 하며 막대기를 바다에 내리치고 모두 힘을 합해 그물을 걷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만선을 하면 흥겹게 '배타령'을 부르며 귀항을 하였고 포구에 도착하면 선주와 마을사람들이 마련한 잔치를 열어 모두가 흥겹게 한바탕 놀았다.

발굴경위

소리보존자인 이용호 선생이 50여년 전부터 뱃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예전부터(약 100년전) 전해내려오는 뱃소리를 배우고 익혔다. 특히 박성순씨가 부르는 '배띄우는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멋연구회(회장 한세우)에서 그 소리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민속공연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다.

특징

노동요 중의 하나로, 노를 저어 배를 부리고 그물을 양쪽으로 벌린 채 막대기로 고기를 몰 때 부르는 소리이다.

놀이시기

사시사철 출어 때마다 하던 소리, 3월부터 11월 사이에 물때를 맞춰 수시로 행해졌다.

구성

1. 고사 : 선주 배앞에서 동네사람들 모두 모여 이번 출항의 무사안녕과 만선귀향을 기원하는 고사.
2. 배웅 : 험한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에게 무사히 다녀오라는 인사
3. 승선 : 포구에서 배에 오른다.
4. 배띄우는 소리 : 닻을 올리고 배가 죗골수문통으로 가고 거기서 돛을 올리고 다시 검디뻘바다로 나간다.
5. 그물 늘이는 소리 : 고기잡을 곳에 당도하면 큰배와 작은배 두척이 양쪽으로 그물을 늘이면서 고기를 몰기시작한다.
6. 그물당기는 소리 : 고기를 몰아 큰배쪽으로 오면 고기가 가득찬 그물을 힘차게 당겨 올린다.
7. 뱃노래 : 만선을 하고 귀향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흥겹게 노래한다.
8. 하선 : 뱃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오면 선주와 동네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온 어부들을 반기며 얼싸안는다.
9. 배치기 소리 : 귀향한 선장과 어부들은 배치기 소리를 하며 동네사람들과 춤을 춘다.
10. 환영잔치 : 배치기 소리에 이어 풍물패가 흥겨운 판을 벌린다. 사람들이 춤을 추며 술과 음식을 즐긴다.

진행과정

고사 → 배웅 → 승선 → 배 띄우는 소리 → 그물 늘이는 소리 → 그물 당기는 소리 → 뱃노래 → 하선 → 배치기 소리 → 환영잔치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

구리 구지농악

구리

고증. 박명섭 | **지도위원.** 류승표

유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은 지형이 평탄하고 산이 완만하며 둘이 가까이 있어 예부터 부락이 형성되었고 농사짓기에 적합하였다. 농사 지으면서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높이고 피로를 덜며 나아가서 협동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농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농악은 파종과 추수를 축복하고 농가의 평안을 비는 음악으로 발전되었다.

발굴경위

젊은 사람들이 떠난 농촌에서 더 이상 농악을 연주할 사람들이 없고 농사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농악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악보도 없고 기록도 없는 농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갈매동 농악은 주로 농민들이 두레를 조직하여 김을 맬 때나 민속놀이에 능률을 올리고 협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 가락이 빠르고 경쾌하여 신명나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농경기(김매기, 논매기, 모심기, 추수기) 및 마을 행사

구성

농기, 영기, (오방기), 호적, 쇠, 징, 장구, 북, 벅구, 무동, 잡색

진행과정

돌림버꾸 → 오방진 → 마당놀이 → 당산벌림 → 절구버꾸 → 사통백이 → 옆치기 → 대대옆치기 → 쩍쩍이 → 밀버꾸

안성

안성청룡 바우덕이 지경다지기

고증.홍원의 | **지도위원.**황년임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유래

안성 청룡사는 예로부터 사당패들의 근거지로, 1865년 경복궁 중건 시 사당패의 꼭두쇠이던 바우덕이가 지경다지기 소리를 하여 대원군에게 옥관자를 하사 받았다고 전해짐.

발굴경위

바우덕이가 경복궁 중수식에서 지경다지기 선소리를 잘하고 춤을 잘췄다는 청룡리 주민들 설화 및 마지막 남사당패 양도일의 1968년 동아일보 인터뷰를 바탕으로 1927년〔별건곤〕기사에 놀이패들이 지경다지기 소리를 했다는 대목에 주목하여 발굴

특징

"三角山第一峰에 鳳鶴이 넌즛 안전구나. 鳳의 등에 터를 닥고 鶴의 나래에 집을 지니. 둥구재, 萬里재는 靑能이요. 往十里, 駱山은 白虎로다. ~~" 이 노래는 경복궁 중건 당시 공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노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연패들을 모집하여 보급한 노래로, 당대 최고의 명창이었던 바우덕이가 불러서 유명해짐.

놀이시기

남사당놀이는 봄에서 가을까지 전국을 떠돌며 공연.

구성

- 지경꾼 24명
- 풍물패 22명
- 기수 6명
- 기타 잡역 10
- 바우덕이 외 소리꾼 6명

진행과정

지경꾼들이 지경다지기를 할 때 바우덕이는 멕이는 소리를 하고, 지경꾼들은 받는 소리를 함. 이어서 바우덕이는 줄타기 공연을 함.

용인

포곡읍에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 재현

고증.정양화 | **지도위원.**이병옥

유래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시 여겼던 성리학 의식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상례의식을 재현한 것으로, 용인시 포곡읍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세거문중들의 장례행렬을 재현한 놀이이다.

발굴경위

'사거용인'의 의미를 살리는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지역문화계에서 진행돼 오다가 용인시 포곡읍 지역의 용인 이씨 등 세거문중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을 증언과 사료조사, 고증을 통해 재현하게 되었다.

특징

장례행렬을 통해 장례문화 풍습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놀이로서 참가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르나 대회 참가 기준에 맞춰 80명으로 축소하였다.

구성

악사, 개, 우산, 방상씨, 불삽, 운삽, 영여, 상여, 선소리꾼, 상주, 만장

진행과정

발인 → 노제 → 안전걸음 → 징검다리 → 외나무다리 → 우물 → 눈두렁길

Fresh Energy
OSAN

오산

오산외미거북진놀이

고증.박재익 | **지도위원.**최형욱

유래

오산 외미거북진놀이는 농악과 걸립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 놀이로써 웃다리 풍물굿의 전형적인 형태로 진을 움직이는 풍물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정초 하룻날부터 대보름날, 추석전후로 하여 마을의 여러 가정에 돌아다니며 가정에 복을 빌어주며 걸립을 하는데 이때는 수수나 짚을 이용하여 거북이와 남생이를 만들어 돌아다니던 놀이이다. 거북이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신성한 동물로 이 거북이에 신앙적인 의미를 두어 각 가정에 복을 빌 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주고 마을 주민들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놀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굴경위

오산 외미거북진놀이는 경기도 남부지역 전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대표적 민중놀이로 모두가 하나 되어 신명의 한판을 벌이는 일의 음악이자 축제의 음악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북놀이가 성행하였는데 오산에서는 서랑동, 금암동, 금곡리, 내삼미동 등 에서 정초 하룻날부터 대보름날, 추석전후로 하여 마을의 각 가정에 거북이와 남생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복을 빌었다. 그러나 놀이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금암동과 서랑동에서만 소수로 추석전후로 거북놀이가 행해져 오고 있다. 이에 오산외미걸립농악보존회에서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놀이 문화를 다시금 복원하기 위하여 마을별 어르신들을 찾아가 얘기를 듣고 연구 및 발굴하여 오산만의 특징을 지닌 거북진놀이를 시연하여 농경사회의 쇠퇴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제는 그 존재가치가 퇴색되고 연행이 요원해진 일과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특징

오산외미거북진놀이는 걸립과 농악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거북이 5마리와 남생이 4마리가 노는 모습은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농악에 쓰이는 다양한 진을 이용하여 우주만물 오행을 뜻하는 팔괘진, 오방진, 십자진, 가새치기 등 화려한 진법을 이용하여 걸립 후의 대동놀이를 한판 노는 신명의 한마당을 만든다.

놀이시기

마을에서 하는 걸립은 주로 정월 초하룻날부터 대보름 전후, 추석 전후에 하며 마을사람이 직접 농악대와 거북이, 남생이를 구성하여, 농악을 치며 집집을 방문하여 돈과 쌀을 거두는 것인데, 기예가 뛰어난 농악수들과 흥겨운 거북이들의 놀이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한데 어우러져 놀았다.

구성

오산외미거북진놀이에 쓰이는 악기로는 꽹과리3, 징2, 장구3, 북3명이 있으며 거북놀이를 위한 편성은 거북이, 남생이, 양반, 마님, 아낙, 기수, 법고, 남정네, 동네아이들 등 40~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과정

1. 당산제
2. 길놀이 (입장)
3. 우물굿
4. 걸립놀이
   - ① 대문놀이(거북놀이)
   - ② 걸립(음식나누기)
   - ③ 지신밟기(터주굿, 조왕굿)
5. 대동놀이

   (쌍원진 놀이 - 십자진 - 오방진 - 오방진풀이 - 8괘진)

군포 군웅제

고증.박상오 | **지도위원.**한영숙

유래

숙종대왕이 군웅제를 지낸 것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군웅제는 마을의 평온과 각 가정의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며 제물을 바친 것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GUNPO 군포시

군포

발굴경위

수리산 도립공원에 위치한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 마을에서 배달나라를 연 14대 황웅천왕(일명 도깨비대왕)으로 붉은 악마의 상징이기도한 도깨비 대왕을 모시는 제례를 마을 제례 행사로 지내왔으며 현존하는 군웅제 중 명맥을 이어온 몇 안되는 역사적인 보존가치를 지닌 제례이다.

특징

군웅제 터주가리는 매년 그 해의 볏짚으로 엮는데 있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왔고 2002월드컵에 붉은 악마로 응원단으로 활약을 한바 있다.

놀이시기

매년 음력 10월1일에 행사가 진행된다.

구성

20여명의 민속 무용수가 풍년가 아리랑 노래 부르며 이에 맞춰 축원 발원하는 무용을 선보인다.

진행과정

풍년아리랑을 부르며 리더와 장구 등 악기와 무용수의 부채춤이 어우려지며 1명의 화동이 나서 축원 기원을 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양평나물놀이와 목도소리

고증.최원산 | **지도위원.**신필호

유래

양평군은 경기도의 제일 동쪽에 위치한 군으로서 강원도와 인접하면서 용문산을 중심으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양평에서는 산이 많은 탓에 여성들의 <나물노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금도 나물을 뜯으러 가거나 할 때 나물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강원도와 인접한 지역이라 정선아라리와 강원도 아리랑의 곡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산이 많은 군 특성상 예부터 벌목을 많이 하였는데 무거운 나무를 옮길 때 일하는 사람들끼리 호흡이 맞아야 하므로 이때 자연스럽게 노래가 필요하여 목도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양평 나물놀이와 양평 목도소리는 용문산을 비롯한 산이 많은 지방에서 생활해온 우리 조상들이 힘든 일손을 덜기위해 슬기를 모아 생활하던 한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발굴경위

경기소리보존회 양평군지부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공연을 하던 중 어르신들께서 나물노래 등 여러 가지 양평 토속민요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평군 청운면 신론2리 전사순 여사와 양동면 매월2리 성월선 여사의 소리를 바탕으로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특징

양평은 간단한 담을 것만 있으면 쉽게 주변 산에 나물을 캐러갈 수 있어서 나물노래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불리웠다. 강원도와 인접하여서 나물노래는 정선아라리와 강원도 아리랑 곡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여자들이 산나물을 캐며 나물노래를 불렀듯이 산이 많은 양평지역에서 남자들은 산에서 나무를 한 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도소리를 많이 불렀다.

놀이시기

주로 나물을 캐는 시기인 봄·가을에 많이 불리웠다.

구성

나물놀이는 입산하며 노래하며 나물캐기, 한마당 놀이로, 목도소리는 입산, 벌목, 운목, 한마당 놀이로 구성되었다.

진행과정

제1과정(입산) 여자들은 양평 나물노래를 부르며 입산하고, 남자들은 등걸잠방이에 짚신과 머리수건을 매고 도끼 줄톱 낫 등을 주루먹에 넣어 가지고 여자들과 함께 입산한다.

제2과정(나물 캐기와 벌목) 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물노래를 부르며 나물을 캐고, 이때 남자들은 도끼질과 줄톱질로 나무를 벤다.

제3과정(운목) 베고 다듬은 나무를 8명이 목도 소리를 하며 운반한다. 이때 여자들은 목도소리를 함께 부른다.

제4과정(한마당 놀이) 여자들은 물허박 장단을, 남자들은 키 장단과 도끼, 톱, 목도채 등을 들고 농악 소리에 맞춰 노래를 신명나게 부르며 이를 끝으로 퇴장하여 막을 내린다.

맑은행복 양평

양평

탑동상여회다지소리

고증.김춘경 | **지도위원.**이석기

유래

탑동은 동으로 왕방산, 남으로 천보산, 북으로 소요산으로 둘러싸인 두메산골로서 이조마지막 왕후였던 윤비의 생부인 윤판서를 운구하였던 상여를 탑동 낭모루에 놓고 가는 것을 계기로 유래되어 왔음.

발굴경위

1980년대 초 고장의 토박이신 김수근(작고), 윤창노(86세), 이우찬(작고) 세 분의 선각자에 의해 발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특징

1. 달구는 3, 5, 7 캐로 하는데 1캐에는
2. 사위를 골탕먹임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자성하도록 함
3. 외나무다리
4. 마지막 달구에서 흥을 겸한 꽈배기 율동은 탑동에서만 지켜온 회다지를 위한 춤이라 할 수 있음.

놀이시기

매년 8월 대동놀이시

구성

상제 3, 사위 2, 안상제 3, 딸 2, 선소리꾼 1, 교의 1, 상여꾼 24, 영정 1, 건포 1, 만장 11 등 총 50여명

진행과정

제 1과정 : 발인제

집 마당에 마지막으로 잔을 올린다. 제를 다 올린 후 요령을 흔들어 상여를 메고, 발을 맞추고 상제(남여)의 마지막 집에서의 절을 3배 받고 출발한다. 이때의 상여소리는 슬픔을 공감하고 가신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안상재들은 가신분의 짐을 앞마당에 태우고 그 연기도 상여를 따라 간다고 한다.

※세상을 달리하신 어른에 대한 슬픈 마음을 후렴을 곡하는 것처럼 소리를 하는 특성이 있다.

제 2 과정 : 사위 상여 밑에 가두기

상여가 한곳에 머물러 제자리걸음을 한다. 이때 사위가 절을 하면 상여를 이동시켜 상여 밑으로 밀어 넣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발로 차는 등 사위를 가둔다. 다른 동네에 살면서 거들먹거리는 양반들을 이때나 골려주자는 의도와 사위가 망자에게 생전에 효도 하지 못한 일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극락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을 기원하기도 한다.

제 3 과정 : 외나무다리 건너기

외지로 멀리 나가있는 친인척이 마지막 상면을 하기 위해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루는 동안 홍수가 나서 기존다리가 훼손되어 큰 나무를 쓰러뜨려 놓고 임시 외나무다리로 상여를 모시였다한다.

제 4 과정 : 회다지

회다지는 3캐 내지 5캐를 다지는데 1캐에서는 그 터에 대한 축원 즉 명당이라는 뜻의 소리를 하고 2캐에서 인간사의 허무함과 후세대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바라는 덕담의 뜻에 소리를, 3캐에서는 상주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가 슬픔에서 벗어나 흥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제일 흥이 나는 방아타령 새타령 소리를 한다.

※1캐에서는 긴회닫이 소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해 진적이 없는 긴달구 소리를 발굴하여 그 간에 긴달구소리가 잘못 전승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긴달구소리 : 故김수근씨의 소리를 녹음 한 것을 이번 기회에 발표하게 된 것임.)

Do Dream 동두천

동두천

남양주

삼봉두레풍물

고증.홍은채 | **지도위원.**이광수, 홍은채, 윤태경

쾌한도시 남양주

유래

삼봉리는 부락 강 건너 갓을 쓰고 있는 형상의 가무산은 큰스님, 삼봉리의 3개 봉우리는 작은 스님 형상을 하고 있다. 삼봉두레풍물은 1890년경(120여년전) 어느 스님이 '삼봉부락은 풍물을 해야 동네가 편안하다.'하는 말씀에 풍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봉두레풍물은 정월에 칠성제를 지내기 않고 각 집을 돌며 고사소리와 마당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발굴경위

- 2007년 ~ 2008년 2월 21일 : 채록 및 재연(농업기술센터)
- 2009. 12. 20 : 재연(문화관광부 사업)
- 2010년 ~ 2014년(5회) : 남양주 다산문화제
- 2011년 ~ 2014년(4회) : 남양주 풍물대동제, 천마산 산신제
- 2014년 10월 : 슬로라이푸 국제대회

특징

삼봉 두레 풍물은 기본적으로 무동, 오무동타기 등 경기 충청 일대의 웃다리 풍물에 해당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길가락, 양상모 장단, 칼상모 장단, 다딧가락, 무동에 춤가락 등 삼봉농악에서만 불려지는 장단명칭이 있다. 웃다리 판제에서는 고깔을 사용하지 않지만 장구, 북, 징은 고깔을 사용하고 있으며, 굿거리로 판을 구성하며 상모놀음을 하고, 제의 없이 탈을 쓰고 하는 연희내용은 일반적인 웃다리 풍물과 차별화 되는 내용들이다. 현재 연행되는 웃다리 풍물의 판제 및 가락 구성은 거의 남사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삼봉 농악은 오히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생적이고 독창적인 두레풍물로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시기

정월대보름

구성

치배 : 꽹과리 4, 징 3, 북 6, 장구 10, 소고 4, 호적 1, 기수 2
잡색 : 조리중1, 탈 11

진행과정

1. 울림
2. 길가락 → 칼상모 장단 → 양상모 장단 → 인사굿
3. 무동애춤가락 → 반삼채 → 양상모 장단
4. 칼상모장단 → 양상모 장단 → 상모놀음
5. 칼상모장단 : 원진, 당산벌림
6. 고사반
7. 7채가락 → 6채가락 → 반삼채 → 칼상모 장단 → 양상모 장단

양주

양주들노래

고증.김헌선 | **지도위원.**박정화

아름다운 변화 양주

유래

양주는 곡창지대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으로, 논농사를 둘러싸고 일과 관련된 노동요가 매우 발달할 수 있었으며 들노래소리를 전하고 있는 1930년대 출생 김병옥·김환익·허영이·황상복·박인병 등으로 볼 때 적어도 1900년대 초반에는 들노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양주시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 예술 복원 및 시연사업)

또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조금씩의 차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주들노래와 유사한 소리를 이웃 고장인 파주, 고양, 동두천, 포천 등지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양주들노래는 백석읍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발굴경위

(1) 양주는 들이 넓고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여서 예로부터 노래와 놀이가 풍성하게 발달하였다.

(2) 가멸진 문화적 환경이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서 골골이 여러 가지 각양 각색의 소리를 구현했다.

(3) 인심이 순후하고 소리로 문화를 만드는 창조력이 양주 들노래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4) 양주들노래는 백석읍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과 남면의 토박이 소리가 곁들여져 들노래의 다양성을 결정하였다.

특징

(1) 양주들노래는 지역적으로 황해도소리와 서울소리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소리가 어울리는 오묘한 소리가 우러나게 된다.

(2) 수심가토리의 맛과 경토리의 뼈대가 혼용된 소리의 면모가 발현되는 점을 만날 수 있으며 소리의 결과 깊이를 만나는 특징이 있다.

(3) 소박한 논농사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나는 소리와 놀이가 어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놀이시기

모심는 철부터 시작하여 애논파기 (호미로), 두벌논매기 (손으로), 삼동논매기 (손으로) 시기까지 두벌논매기나 삼동논매기 때 논매는 소리를 한다.

구성

기수, 농악대, 선소리꾼, 농부, 아낙, 모잽이, 지게꾼, 소몰이꾼, 지주

진행과정

1. 소모는소리

2. 모심는소리

모찌는소리 → 긴 열소리 → 자진 열소리

3. 논매는소리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소리 → 긴 방아소리 → 사도소리 → 새참놀이 → 꽃방아소리 → 훨훨이소리 → 상사소리 → 새날리는소리

4.만판놀이

시흥시
SIHEUNG CITY

군자봉 성황제 유가

고증.서영대

시흥

유래

군자봉은 행정구역상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이 산에서 성황제를 지냈다는 것은 조선 전기 『동국여지승람』, 조선 후기 『여지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국가의 공식 기록물에 존재가 언급될 정도로 이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졌으며, 최소한 50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성황제이다. 하지만 군자봉에서 모시는 성황신이 김부대왕, 즉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에 '성황신앙'이 전래된 고려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으로 군자봉성황제는 천년의 전통이 깃든 유서 깊은 행사라 볼 수 있다. 성황신은 지역 수호신으로 우리 조상들은 고려시대 이래 고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빌어 왔고 그렇게 비는 절차가 바로 성황제이다. 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정상 성황당을 지어 경순대왕을 모셔놓고 매년 섣달(음력12월)에 당주와 마을주민들이 올라가 제를 지낸 후 경순대왕을 마을로 모시고 내려와 집집마다 유가를 돌고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이 되면 다시 군자봉 성황당에 모신 의례로 그해에 농사의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3일에 풍작과 마을안녕의 편안함을 감사드리고 매년 편안하길 기원하는 마을대동제로 이어졌다.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군자봉성황제는 고려시대 이래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풍습을 계승하는 것이다.

발굴경위

시흥시에서는 2002년 군자성황사지를 향토유적 14호로 지정, 현재도 매년 군자봉 성황제를 지원하고 있다. 2004년 학술 조사 연구. 2005년, 단행본 연구서로 발간. 2009년부터 군자봉 성황제와 함께 유가행렬을 부활시켜 전통문화의 전승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징

첫째, 성황사로 섬기던 곳이라고 하는 점이다. 둘**째,** 민간전승에서 소중한 것은 농악대로 하는 굿과 무당의 굿이 합쳐진 형태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성황제의 신격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인접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성황제나 도당굿이 서로 네트워킹이 가능한 지역유형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놀이시기

음력 10월3일 의례와 더불어, 3월 삼짇맞이, 4월 초파일맞이, 6월 유두맞이, 7월 칠성맞이, 10월의 성황제는 군자봉에서 펼치는 산제와, 당집 의례를 함께 치루었다. 또한 3년마다 성황기를 들고 유가를 도는데, 안양, 과천은 물론 수원, 평택까지 다녔다.

구성

크게 군자봉 서낭당에서 치루는 산제와 산아래 신당에서 치루는 의례로 나뉘어져 있다. 본래 군자봉에 당집이 존재 했을 때는 군자봉 서낭당에서 모든 의례가 행해졌으나 현재는 당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진행과정

풍물 → 유가행렬 → 마을 사람들은 대왕을 맞이하며 재배 → 도당바라기 → 빠른 당악으로 사방치기라는 진쇠춤 → 마음사람들도 비슷한 흉내를 냄 → 탈춤을 추면서 연기 → 유가행렬 퇴장

수원 두레

고증.임광식 | **지도위원.**김현수

수원

수원시 SUWON CITY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유래

수원두레는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면서부터 유래된 역사 깊고 의미 있는 전통 농악이다. 수원에 수원화성이 축성될 때 둔이 설치되면서 농민들이 농한기에 군사 훈련을 받던 때로부터 군악과 농악, 굿판이 함께 어우러지고 축성과정, 근무형태, 왕의 거동 등을 내포한 풍물로 발전하였고, 수원두레는 판굿뿐만 아니라 고사굿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수원 두레는 타 지역 풍물에 비해 토속적이고 질서와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및 도시풍물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국악과 농악이 어우러져, 진쇠장단 및 터벌림 장단 등 경기도 당굿의 고유한 무속장단이 내포되어있다.

발굴경위

130여 년을 이어오던 경기재인청이 1920년 일제에 의해 해산되자, 운학(故)이동안(1906~1995)선생께서는 무용학원과 여성 농악단을 조직하여 영·호남 등지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정진태, 전용식, 유병하, 황산만씨 등에 의하여 이어져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사라질 뻔한 수원두레는 임광식 선생의 농악지도로 다시 활기를 뛰고 있다. 수원두레는 2002년 6월 23일 장안공원에서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첫 발표 후 2002년 11월 3일 경기농악전국대회에서 장원을 수상, 2008년 11월 10일 전국농업인풍물경연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고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며, 원형에 가까운 고증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징

수원화성 축성시의 향상과 군인들의 근무형태 그리고 수원 주민들이 행하여지는 고사소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원천 우물굿, 성밟기, 입성놀이 양반들의 향락문화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마을의 안녕과 국가의 안녕을 빌기도 하였고, 경기제의 민요창법으로 특이하게 꺾는 창법과 옛 어른들이 농사에 중요성과 가족의 안녕을 소망하는 작은 서민적인 사설이 담겨있다. 또한 서열이 남매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단무동 놀이 등 주변 지역과는 특이한 점이 많이 있다. 평택이나 안성농악과도 대조적인 고유의 소리굿, 고사굿, 잔굿, 춤굿, 마당굿 등이 있는 지역 전통 민속 예술이며 마당 풍물놀이로서 보존 육성하며 발전시킬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놀이시기

수원두레는 일년 동안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민중속에 일상적은 놀이였다. 정월부터 대보름까지는 마을에 안녕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축원 고사굿을 연희하였으며 농사가 시작하는 때에는 농사를 잘되게 기원하는 축원, 농사가 진행되면서는 농요와 함께 힘든 농사일에 힘이 되어 주었으며, 추수가 끝나면 하늘에 감사하는 농악이 이루어졌다. 그중 수원두레는 정월초에 행하여 졌던 지신밟기와 마을의 공공건물을 지을때 수익을 남기위해 했던 걸립굿, 추수가 끝나고 하늘과 땅에 감사하는 판굿이 유명하다.

구성

농악대의 편성은 영기(令旗), 농기(農旗), 호적(태평소), 꽹과리(상공운 ·부쇠 ·종쇠), 징, 장구(수장구 ·부장구 ·종장구), 북, 법고(상법고 ·부법고 ·꼬리법고 등 8~12명), 무동(상무동 외 8명), 새미, 탈광대로 되어 있다. 전라 농악에 비하여 잡색(雜色)이 적고 무동이 많은 편이다. 이들 농악대의 복색(服色)은 꽹과리잡이는 등거리 잠방이에 남색 더거리를 걸치고 나비상모가 달린 벙거지를 쓰며, 징잡이, 장구잡이, 북잡이들은 쾌자에 나비상이 달린 벙거지를 쓴다. 법고잡이는 쾌자를 걸치고 채상모가 달린 벙거지를 쓴다. 무동은 춤을 추는 어린아이로 붉은 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댕기를 단다. 새미는 승복을 입은 어린 소년으로 장삼에 고깔을 쓰며, 탈광대는 도포에 정자관을 쓰고 탈을 쓴다. 무동, 새미, 탈광대는 악기는 다루지 않고 춤만 추며 따라 다닌다. 경기농악에 쓰이는 쇠가락으로는 길군악칠채, 굿거리, 자진가락, 덩덕궁이, 삼채굿, 동리삼채, 일채 등이 있다. 경기농악의 쇠가락은 간소하면서도 짜임새가 분명하고 경쾌하다. 판굿은 인사굿, 돌림법고, 소리굿, 겹돌림법고, 당산벌림, 양상치기, 허튼양상치기, 오방진, 무동놀이, 쌍줄백이, 사통백이, 가세벌림, 좌우치기, 네줄백이, 밑치기법고, 개인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진행과정

입장굿 → 인사굿 → 돌림법고 → 겹돌림법고 → 당산벌림 → 양상치기 → 허튼양상치기 → 오방진 → 가세벌림 → 따법고 → 십자진 → 밀치기법고 → 개인놀이등으로 진행된다.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고증.이숙희 | **지도위원.**민성기

광주

광주시 GWANGJU CITY

유래

조선후기 남한산성에는 행궁 앞에 악공청(樂工廳)이 자리 잡고 있어(2012년 남한산성 행궁 앞 악공청(樂工廳)터를 발견) 악사들이 행궁 또는 관아에서 제례(祭禮), 연향(宴饗), 임금의 행차, 과거 급제자의 문희연(聞喜宴), 주조(晝操)와 야조(夜操) 등의 군사훈련에서 행해지던 남한산성취고수악(吹鼓手악)이 연주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문헌인『여지도서, 사찬읍지, 중정남한지, 한국근대읍지, 만기요람』에 따르면 남한산성 수어청에는 314명의 취고수악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 군영악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경위

조선조 궁중의 선전관청(宣傳官廳)과 각 영문(營門)에 소속된 악수(樂手)들에 의해서 임금이 성문 밖이나 능(陵)으로 행차할 때 연주되던 세악수 중심의 대취타만이 연주되고 있다. 하지만 취고수악은 현재 전승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취고수악을 복원하여 연주하는 곳은 전국에 없을 뿐 만 아니라 대취타와 다른 형태로 연주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취타에는 없는 악기들인 대각, 솔발, 점자를 복원하여 연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주되고 있는 대취타와는 많은 모습이 다르다. 우리나라 남한산성 수어청에 우리만의 우수성을 지닌 취고수악대가 있었으며 이제 용맹스럽던 옛 우리 군대의 모습과 소리를 다시 찾아 세계 속에 우뚝 세워 보고자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취고수'는 조선후기 새로 등장한 군영악대로써 취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취타란 원래 입으로 부는 취악기와 손으로 치는 타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에서 나온 용어다. 남한산성취고수악대는 우리나라의 전통 군악대입니다. 취타에 사용되는 취악기로는 태평소, 대각, 나발, 나각 등이 있고 타악기로는 징, 북, 바라, 장고, 솔발, 점자 등이 있다.

놀이시기

남한산성 취고수악대란 취타악기로 구성 된 조선 후기 군영악대로써 군대의 의식, 대규모 행진, 군사 훈련, 지방 관아의 향연에 쓰였다.

구성

기수	등채	나발	나각	대각	태평소	용고	장구	자바라	솔발	점자	정	계
6	1	4	4	2	8	8	2	3	2	2	2	44

진행과정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의 행진편성은 '전도 무동 → 기패 → 전도 호위대 → 대취타 → 수령 → 수행인 → 후도 호위군사'로 된 귀인행차 유형으로 편성하며, 악기편성은 취고수악대는 나팔 → 나각 → 대각 → 태평소 → 용고 → 장구 → 북 → 바라 → 솔발 → 점자 → 정 '으로 악기가 편성 한다.

Gwangju Clean

임진강 참게 줄당기기

고증.이만덕 | **지도위원.**이준용

유래

연천의 임진강은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민물 참게가 봄이면 바다(서해)에서 올라와 여름내 서식하다가 가을에 산란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음. 이때의 참게는 알이 가득 들어 있고 상품의 가치가 높아 바다로 내려가는 참게를 잡기 위해 개천에 발을 엮어서 개천을 막고 천변에 원두막을 지어 그곳으로 내려오는 참게를 밤을 새워 잡았으며 이는 농부들에게 주요한 소득원이 되었으나 참게발을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쪽에는 참게가 많이 잡히나 아래쪽은 덜 잡히기 때문에 장소를 두고 마을 사람들 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분쟁이 많았음. 이에 참게발 모형의 줄다리기를 만들어 시합을 한 후 이기는 쪽을 위쪽으로 정하는 방식이 관습처럼 내려왔음.

발굴경위

농약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한동안 임진강에는 참게의 개체수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였으나 최근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에서 참게의 알을 부화시켜 대단위 방류를 함으로써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참게잡이가 시작되었으며 임진강의 지류인 황공천, 아미천, 차탄천등에 속한 마을을 방문, 예전부터 위 놀이가 전래되어 왔음을 확인함.

특징

기존의 줄다리기는 서로 마주보며 당기지만 참게 줄당기기는 등을 돌린 채 끈을 허리에 걸고 당기는 놀이로서 참게발 모양의 끈 다섯 개(양쪽 총10개)에 사람이 들어가서 부채살 모양으로 당기는 민속놀이임.

놀이시기

참게가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로 찬바람이 불고 수수가 익어가는 9월말경에 실시하는 놀이임.

구성

참게 모양의 줄다리기를 만들어 가장 다리가 긴 가운데 끈에는 2명, 나머지는 모두 1명으로 한 팀을 이루며총 12명의 선수가 참여함. 게임 방법은 기존의 줄다리기 방식으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서로 잡아당겨 한쪽으로 많이 끌고간 팀이 승리한 것으로 심판 양승제를 원칙으로 함.

진행과정

인사 굿이 끝남과 동시에 한 팀이 먼저 참게막사로 가서 발을 설치하려고 하자 뒤이어 다른 팀이 합류하면서 실랑이와 함께 큰 다툼이 벌어진다. 싸움이 격렬해 지자 양반이 나타나서 중재를 한다. 이때 양반은 "어허~ 이 사람들아 올 여름내내 아랫마을 윗마을 품앗이도 같이 하며 사이좋게 농사 잘 짓다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쌈질들인가? 쌈질들이! 이러다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지으려고 이러나? 그러지들 말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들 하겠는가?"하면 모두 "예~" 하고 양반은 다시 "저쪽 언덕에 보면 줄당기기 보이지? 그쪽으로 가서 줄당기기로 결판을 내서 이긴 마을이 좋은 장소를 차지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면 모두"예~"하고 고개를 숙인다. 줄당기기를 하러 가는 도중에도 서로 옥신 각신 하며 다툰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포지션으로 들어가 끈을 허리에 걸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허리를 이용하여 줄을 잡아당겨 많이 끌고 간 쪽 승리를 하는 것으로 3판중 2판을 이기는 팀이 최종 승자가 되며 최종결정이 나면 이긴 팀에서는 환호와 함께 덩실 덩실 춤을 추고 진 팀에서는 신발을 벗어들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한다. 이긴 팀은 참게 막사로 가서 참게발을 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긴 팀의 대표가 진 팀의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운 뒤 위로와 함께 끌어안고 화해의 악수를 한 후 준비해간 술과 안주를 같이 어울려 먹고 마시며 한바탕 마당놀이를 즐긴 후 풍년가를 부르며 퇴장한다.

연 천 군
YEONCHEON

통일한국 심장
한반도의 기적 Miracle 연천
The Heart of Korea · YeonCheon

연천

용면리 용줄다리기

고증.이인수 | **지도위원.**박연하

이천

유래

이천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신둔면 용면리에는 '용줄다리기'라는 특별한 줄다리기가 2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동리 앞에 모여 남녀노소가 함께 용줄다리기에 참여하였다.

발굴경위

1921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육천명의 대해희」라는 제목으로 이천의 줄다리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다. '당일 회장에는 관람자가 삼 만여 명에 달하였고 줄다리기는 사람이 육천 여명에 달하여 실로 공전절후의 대장관을 이루었으며...(중략)' 이처럼 서울에서 구경꾼이 몰려들 만큼 성행했던 이천의 줄다리기는 마을 단위로도 활발히 행해졌다. 최근까지 용면리 용줄다리기, 진가리 갈매울줄다리기, 단월리 단드레줄다리기 등이 이어져 왔으며 이천 촌로들의 고증에 의하면 200여 년 전부터 행해왔다고 한다.

특징

200년 이상 전래된 역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함. 전통적인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요소, 줄다리기가 끝난 후 줄을 잘라가는 민간신앙적인 요소, 지신밟기와 달맞이로 연계.

놀이시기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년 정월대보름날 온 마을사람들이 용줄다리기에 참여한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볏짚을 거두고, 줄을 만들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다. 요즘은 대보름날 하루만 놀지만 예전에는 사흘에 걸쳐 승부를 가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구성

숫줄(상촌,동부-성인남자), 암줄(하촌,서부-여성, 미성년남자), 두레패, 구경꾼

진행과정

1. 볏짚거두기: 두레패를 앞세워 길놀이를 하며 마을 집집마다 방문하여 가구 별로 5~6단씩 짚단을 거둔다.

2.줄드리기: 볏짚을 동리 입구 고목나무 옆에 쌓아두었다가 보름날 아침부터 줄을 만든다(줄드리기) 모은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높은 가지에 걸고 세 개를 합쳐 보다 굵게 드리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지름1m 내외, 길이 30~40m의 줄을 만들고 겻줄을 매어 지네모양으로 암줄과 수줄을 만든다.

3. 진잡이: 보름달이 뜨면 줄을 마을로 옮겨 진잡이를 한다. 숫줄에는 변강쇠가 올라타고, 암줄에는 옹녀가 올라타서 양편의 마을을 나타내는 서낭대와 영기를 앞세우고 기싸움을 벌인다. 어느정도 지나면 암줄과 숫줄에 비녀목을 꽂아 고정시키고 줄다리기 전 마을고사를 드린다.

4. 결전: 징소리와 함께 양편이 힘껏 줄을 당긴다.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믿음 때문에 숫줄편이 양보하는 것이 묵계로 되어있다.

5. 마무리: 줄다리기 결전은 짧으면 하루, 길면 사흘에 걸쳐 승부가 난다. 이긴쪽의 줄을 썰어서 거름에 섞으면 농작물이 잘 여물고, 지붕에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고, 소를 먹이면 튼튼해진다 하여 다투어 한 움큼씩 잘라간다.

안양

ANYANG

안양만안답교놀이

고증.김지석 | **지도위원.**박상득

안양시

유래

안양지역의 정월풍속으로 정월 초닷새부터 열엿새까지 주로 짠지패가 주동이 되어 답교놀이를 부잣집 마당에서 날미농악을 하며 부잣집에서 술과 떡국대접을 받아 노는 마을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발굴경위

세시풍습 중에서 정월대보름에 다리를 왔다갔다 거닐면서 노는 놀이가 있는데 이를 다리밟기 또는 답교놀이라고 한다. 만안교는 조선 정조(正祖)의 현륭원(顯隆園) 참배 행차시 통행 편의를 위해 가설한 다리로 정조 19년(1795)에 건립하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만안교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여졌던 만안답교놀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착취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점차 없어지고 인심도 각박해져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87년 지역의 원로들이 실태조사를 하여 1988년부터 5회(1988년~1992년)에 걸쳐 안양문화원에서 만안답교놀이를 재현했었으나. 이후 점차 잊혀지는 지역의 민속놀이가 되었었다. 하지만 안양문화원의 노력으로 2013년부터 다시 구전과 남아있는 고증자료를 토대로 재현되고 있다. 만안답교놀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안교에서 마을축제의 장으로 행하여지던 만안답교놀이를 복원하고 지역문화전승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특징

답교놀이는 주로 다리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안답교놀이는 부자집의 집마당에서도 연희되어졌으며 술과 떡국대접을 받는 마을 축제형식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연희마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시기

정월 초닷새부터 열엿새까지

구성

기수 : 7 ▪ 무동 : 8 (소승/소무) ▪ 밑무동 : 8 ▪ 왜장녀/선소리꾼/양반 : 1 / 4 / 1 ▪ 잽이 (꽹과리/장구/북/징) : 12 ▪ 마을사람 :10

진행과정

길놀이(당굿) → 마당놀이(오방진놀이, 사통백이, 개인놀이 등) → 다리밟기(다리고사) → 선소리, 무동놀이 → 달맞이(짚불놀이, 대동놀이)

잣돌이의 꿈

고증.김만종 | **지도위원.**김영민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유래

잣나무는 '잣'과 '나무'가 합쳐진 말이다. 추사 김정희가 그린'세한도(歲寒圖)' 속에 세 그루의 잣나무가 있고, 고려 현종 때 송나라에서 들어 온 의약서적'성혜방'에도 가평 잣에 대해 극찬하였으며, 또한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148권 양주도호부에 가평군의 토산품을 가평 잣이라 기록되어 있고,'잣불놀이'라고 해서 깐 잣 열두 알을 바늘에 꿰어 불을 붙여 불이 밝게 타면 열두 달 신수가 좋다는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발굴경위

가평군은 전체 산림 중 잣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30%에 이르며, 국내 잣 생산량의 60%를 감당하고 있다. 300여 가구가 잣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워낙 위험하여 잣나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잣 수확은 오로지 사람이 약 15m 높이 잣나무에 올라가 대나무를 이용, 잣송이를 턴다. 그래서인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1시군 1명품 선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가평잣이 명품으로 선정되었고, 네티즌이 선정한 10대 명품이기도 하다. 허나 그 뒷배경에는 잣 수확시 목숨 걸고 잣을 따는 잣털이꾼들의 애환과 고충을 알리고자 "잣돌이의 꿈"을 발굴하게 되었다.

특징

잣나무에 올라가는 과정과 장대로 잣을 터는 모습

놀이시기(생업-잣 따는 과정)

① 묘목심기 ② 잣따기 ③ 잣나르기 ④ 잣송이와 피잣 분류하기
⑤ 피잣말리기 ⑥ 피잣을 깨어 백잣 만들기
⑦ 백잣과 피잣 채로 걸러내기 ⑧ 포장하기

구성

첫째마당 : 잣 유래설명, 묘목심기, 무사고 기원제 올리기
둘째마당 : 잣송이 따기, 잣송이 피잣만들기, 집게로 백잣 만들기
셋째마당 : 풍년기쁨 노래와 춤

진행과정

잣나무 위로 올라가 잣송이를 따면, 잣송이를 주워 담고, 잣방망이를 두들겨 피잣을 만들고, 피잣을 다시 집게로 깨서, 백잣으로 만드는 과정을 노래와 춤으로 보여 주며, 잣 수확의 어려움과 농민의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평

가평군 GAPYEONG

고양

고양시 Goyang City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진밭두레소리

고증. 박전열 | **지도위원.** 이계희

유래

진밭마을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구 벽제읍 성석1리의 자연부락 이름으로 이전(泥田)부락이라고도 하는데 옛 부터 이 지역은 수렁자리가 많아 논 농사가 유명하고 쌀의 무게가 무겁고 찰집니다. 이 지역의 유래에는 옛날 신라가 고구려를 쳐들어 갈 때 이곳을 지나다 말이 빠져서 진격을 못하고 말에서 내려 끌고 가는 소동이 벌어질 정도로 흙이 차지기로 유명 하였는데, 그 때부터 이곳을 진밭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이 지역에서의 농사일이 더 힘이 들었고 이때부터 농사 소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소리를 부르며 농사를 짓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늙어가고 있어 진밭마을에서 십수대를 거주해오며 생존해 계신 신유희님(41년생), 이계희님(44년생)이 전수해주고 정준섭님(28년생)과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민속학자이신 박전열 교수님으로부터 고증을 받음.

발굴경위

농업의 기계화가 진행되기 전인 60년대 중반까지 논농사를 지으면서 소리를 해왔으며, 소리기능을 갖춘 신유희, 이계희님께서 소리기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구성원 대부분이 마을주민인 진밭두레 회원들에게 농사소리를 (열 소리) 가르쳐 전통을 잇게 되었음.

특징

농요(열소리)는 옛 조상들께서 논 농사를 지으며 이어저 내려오는 가락으로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소리로 구성되어 있고 김매기 소리는 떴다, 홀호리소리, 꽃방아타령, 상사도야, 우후야, 몸돌 등 6가지로 되어 있다. 이 중 모내기 소리인 열소리는 소리가 길고 우렁차며 꺾음이 많아 구성진 점이 특색임.

놀이시기

봄~여름

구성

농사소리(열 소리)는 선소리 1명과 장단을 맞추는 잽이 약간명,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율동을 하면서 소리를 받는 소리꾼들이 있으며, 농사놀이나 농사소리를 하는 동안 영기 등 기수들과 농부들이 황소를 앞세우고 쟁기, 가래질, 용두레질, 광주리 등 잡색들이 흥을 돋움

진행과정

잽이반을 선두로 입장하고, 입장한 후에는 풍물에 맞추어 농사놀이(일부)를 시연한 후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모찌는 소리를 비롯하여 모내기소리(열소리) 및 김매는 소리등 농요를 선소리에 맞추어 율동을 하고 이를 받아서 합창을 하며 몸돌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논 밖으로 나가서 풍년가를 부른 후 풍물을 울리며 마을로 돌아감(퇴장)

평택

평 택 시

파일난장 등대굿 놀이

고증.김용래 | **지도위원.**조한숙

유래

'난장'이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市場) 외에 임시로 특별히 열리는 장을 말한다. 난장은 대게 난장을 통하여 여러 사람이 모일 필요가 있는 특수한 지역이나, 특산물이 단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지방에서 열린다. 난장은 정기 장날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두고 계속되기도 했다. 논농사를 주로 하여 특별한 산물이 없었던 평택 지역에서는 주로 명절을 맞아 난장을 텄으니 '파일 난장', '백중 난장' 등이 그것이다. 난장이 열릴 때는 보다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을 모아야했고 그러기위해서는 무언가 보고 즐길 거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기예를 가진 농악단체를 불러다가 장터 한가운데서 굿을 놀게 했으니 이것이 난장굿이다. 또한 농악대회를 열어 한다하는 연희꾼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발굴경위

잊혀져가는 지역의 전통놀이를 계승·보존하기 위해 파일난장 등대굿 놀이를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특징

우리 민족은 백중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 여기저기서 백중놀이가 푸짐하게 열렸고, 자연히 백중난장도 성행하였는데 평택의 안중을 비롯하여 천안, 안성, 오산, 안산, 용인, 수원, 등지에서도 난장이 이루어졌다. 백중난장에 비해 파일난장은 그렇게 흔하게 행해지지 않았지만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었고, 평택 진위에서 열리곤 했던 파일난장 규모는 인근에서 최대였다고 한다.

놀이시기

파일난장 등대굿 놀이는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열린 난장에서 연희하는 등대굿 놀이이다.

구성

파일난장 등대굿 놀이에 사용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장고, 북, 법고, 호적이 있다. 편성은 기수, 야바위꾼, 엿장수, 소금장수, 떡장수, 포목상, 대등대, 소등대, 대감 등과 상쇠, 부쇠, 징, 북, 장고, 소고, 무동 등 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진행과정

1. 보부상 등장

소금장수, 포목상, 엿장수, 떡장수, 야바위(노름)꾼 등 5명등장으로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열린 난장 분위기 연출(음악: 장터 분위기 효과음악 CD).

2. 농악 연희패 등장과 함께 등대 세우기 연출

파일 등대굿을 치기 위해서는 장이 열리는 곳 한 복판에 등대를 세워야 한다(악기치배, 등대 만들고 세우는 사람 등장).

3. 낭 받기

낭기를 세워 놓고 그 앞에 제상을 차린다. 제상의 음식차림과 제상 앞에 단원들이 늘어서는 순서는 등대굿 때와 같다. 차려진 제상 앞에 단원들이 늘어선다. 축원을 드린 후 낭기가 흔들리고 신이 내린 것이 확인되면 다 같이 가락을 털어 내면서 낭대에 세 번 절을 한다. 낭받기가 끝나면 걸립에 들어간다.

4. 등대굿(사방굿)

등대를 세워 둔 곳으로 다시 돌아와 등대를 중심으로 한바퀴 돈 후 차려놓은 제상 앞에서 가락을 털어내며 세 번 절을 한다. 전원 밖을 향해 돌아선 후 다시 삼채와 자진가락을 잠깐 치다가 상쇠가 끊어주면 모두가 가락을 털며 세 번 절을 한다. 절을 하고 난 뒤 삼채를 치며 서쪽을 향해 선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가락을 치고 세 번 절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북쪽, 동쪽에도 절을 하고 다시 제상 앞으로 와서 세 번 절을 하는 것으로 등대굿(사방굿)을 마친다.

5. 고사굿(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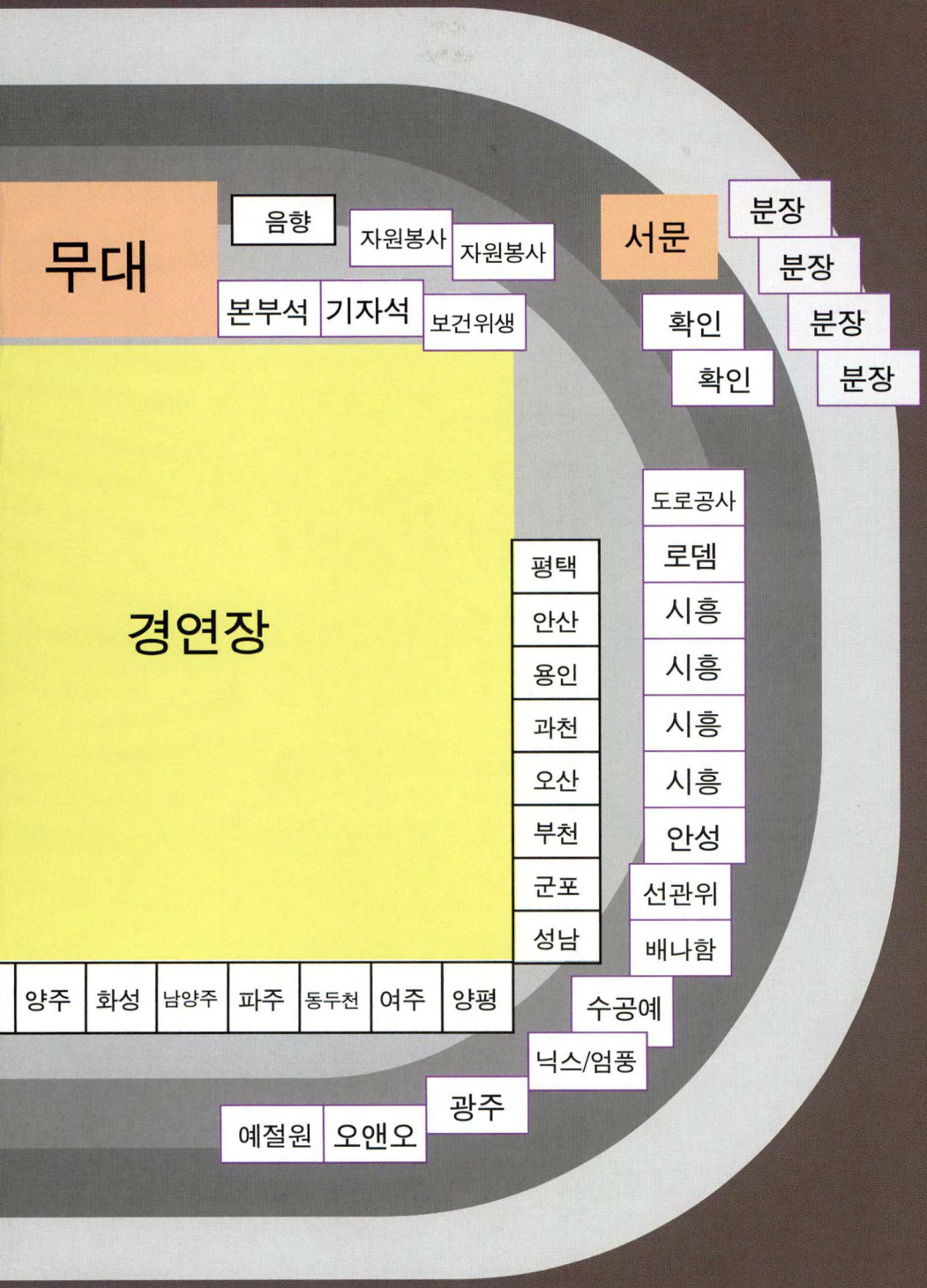
사방굿을 마치고 등대와 제상 앞에서 고사소리를 하며 고사굿을 한다.

6. 판굿(10')

인사굿- 돌림법고1- 당산벌림1- 오방진- 당산벌림2- 사통백이- 원좌우치기- 합동좌우치기- 쩍쩍이굿(영산더드래기-연풍대)- 돌림법고2- 개인놀이- 무동놀이- 12발 채상놀이- 인사굿으로 진행된다.

배치도

새마을
새마을
부스
여협
여협
동문
분장
분장
특설
내빈
내빈
내빈
홍보
홍보
도자
목
단청
우드
금속
박
닥
데코
다문화
전통
놀이
전통
악기
고양
가평
안성
안양
구리
이천
김포
연천
경연장
하남
광주
포천
수원
의정부
시흥
가훈
포토존



* 소품운반 차량은 경기장 서문 부분에서 신속한 소품 하차 후 안내하는 주차공간이동
* 행사구성 및 배치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20회

THE KYEONGGIDO
FOLK ART
FESTIVAL

경기도 민속예술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오산문화원 (18131)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 Tel. 031-375-7755 Fax. 031-375-7959